

첫 하이브리드 총회였던 2022년 총회가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미국장로교는 앞으로 우리가 정한 약속과 사역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 총회장인 루스 산타나-그레이스와 세번 스타링-루이스는 "무한한 번영을 위하여"라는 기치를 걸고 선거에 출마했으며, 총회는 전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GENERAL ASSEMBLY 225 ROUNDUP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총회는 찬성 266표, 반대 116표로 가장 논란이 많은 항목 중 하나인 INT-02를 승인함으로써, 미국장로교는 이스라엘 정부의 법률, 정책 및 관행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관한 “국제법적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장로교의 입장이 반유대주의적으로, 종교 간 관계를 손상시킨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은 집회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권을 지지하는 데 용기를 냈다고 말합니다.

기후 변화. 찬성 340표, 반대 41표의 투표 결과로 총회는 PC(USA) 기구들에 쉐브론, 엑손모빌, 마라톤 페트롤륨, 필립스 66 및 발레로 에너지와 같은 5개의 석유 및 가스 회사가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하지 않고 있다고 결론짓고 이들 기업의 투자를 매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투표는 투자를 통한 사명 위원회(Committee on Mission Responsibility Through Investment, MRTI)의 기업 참여 및 선택적 매각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반영했습니다. 또 다른 항목에 대한 조치인, ENV-09는 또한 화석 연료 산업에서 일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절실함을 확인하고 투자철회는 고용에 대한 선택에 대한 비난, 또는 판단이 아님을 장로교인들이 확신하도록 했습니다.

회개 기도. 총회에서 가장 강력하고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백인 장로교인들이 RGJ-08의 회개를 낭독하고 노예 제도의 죄와 그 유산에 대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사과를 제안했을 때였습니다. 한 총회 위원회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섬 주민들에 대한 폭력, 흑인 여성과 소녀들이 경험하는 격차, 의료 서비스의 인종적 격차를 포함하여 인종 및 젠더 정의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기타 관심 사항으로는 미국장로교의 백인 우월주의에 맞서고 배상적 정의를 위해 사역하는 것입니다.

총기 폭력. 최근에도 총기 난사 사건이 여전한 가운데, 총회는 VIOL-07을 승인하고 2022-2032년을 “총기 폭력 근절을 위한 10년”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는 장로교 선교국에 폭력에 대한 신앙에 기반한 옹호 및 "백인 우월주의 문화, 기독교

민족주의, 젠더와 총기 폭력의 교차점”의 연구를 위한 도구를 개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총회는 또한 VIOL-11을 승인하여 연금국이나 장로교 재단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으며, 총기를 판매하는 3개의 상장 기업인 월마트, 디스 스포팅 굿즈 및 크로거와 기업 참여 절차를 시작하도록 MRTI에 지시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반자동 및 공격 기반 무기로 분류되지 않는 총기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언급했던 무기류는 이미 매각 목록에 있습니다.)

가족 휴가. 총회는 목사의 청빙 기간에 최소 12주의 유급 가족 의료 휴가(자녀 출산, 양육 또는 입양, 아프거나 장애를 가진 가족에 대한 돌봄, 그리고 가족의 상실이나 비극적 사건 이후의 치유)를 포함하도록 제안하는 미국장로교 헌법 수정안을 승인했습니다.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제안된 변경 사항은 대다수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민. 총회는 찬성 340표, 반대 25표의 투표 결과로 미국장로교를 “피난처 교회 및 동반자 교회”로 선언했으며, 교단이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들의 편에서 미국 이민 정책에서 정의를 위해 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종종 장로교인들이 이민자와 동반하여 주택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이민 청문회 및 기타 약속에 참석하고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시키려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구조조정. 특별 위원회가 상정한 권장안을 지지하여, 총회는 미국장로교의 최고 지휘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투표를 통해 PMA와 총회 사무국을 통합할 책임과 행동 권한을 가진 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와 노회의 재정적인 면에 대한 중점을 언급하면서, 총회는 또한 현재 상회비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실험적 모델을 개발하는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재생산 정의. 미국 대법원이 로우 대 웨이드에 대한 판결을 뒤집은 후, 총회는 재생산 정의에 관한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 피임 및 낙태 치료에 대한 접근을 줄이거나 제한하거나 제거하려는 모든 수준의 정부의 시도에 미국장로교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LGBTQIA+ 평등. 총회는 총회 상임 위원회로 새로운 LGBTQIA+ 평등 옹호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여성 및 성 정의 옹호 위원회 및 인종 평등 옹호 위원회에 대한 접근 및 책임에 있어 동등한 성격을 가집니다.

상회비. 총회는 새로운 총회 상회비 평가금액을 2023년 1인당 \$9.85, 2024년 1인당 \$9.80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현재 1인당 8.98달러의 상회비와 비교되는 금액입니다.

2024년 총회. 총회는 네가지의 제시된 옵션 중 또다시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2024년 총회 방식으로 선택했습니다. 즉, 위원회 회의는 온라인 회의로, 본 회의는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대면으로 진행하는 플랜 오메가를 선택했습니다.